

## 내포 원년, 3대혁신 구 체적 성과 거둔다

- 2013년 도정 시책토론회 개최  
... 도정 성과 극대화 방안 모색

내포 시대가 개막하는 내년, 충청도가 3농혁신·행정혁신·자치분권 등 3대 혁신과제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도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또 도민 생활과 밀접한 경제·복지·문화 분야에 도정역량을 집중하고, 각계의 도정 참여 확대를 진정한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목표도 내놨다.



도는 9월 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안희정 지사를 비롯한 도 간부와 정책특보,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도 도정 역점과제 시책토론회'를 갖고, 내년 도정 역점 추진 시책을 점검했다.

이번 토론회는 예년 시책이 부서 단위 개별사업 위주로 추진돼 부서간 연계·협력과 시너지 효과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라, 3대 혁신과제 등 6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부서간 융·복합

을 통한 도정 성과 극대화 방안을 모색했다.

각 핵심과제별 주요 시책을 보면, '3농혁신' 성과 가시화를 위해서는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농산물의 유통선진화를 위한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 ▲충남형 살기좋은 마을 시범사업 ▲농어촌응원운동 본격 전개 등을 역점 추진한다.

또 도민에게 신뢰를 주는 '일 잘하는 지방정부' 구현을 위해서는 그동안 구축한 행정혁신 시스템을 보완·발전시켜 업무누수 0%, 정보공개 100%, 업무성과 100% 달성 등 '제로(ZERO)·100프로젝트'를 적극 추진, 신뢰받는 공직과 최상의 민주주의 지방정부를 실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주민생활형 자치모형을 발굴하고 ▲지역사회 공동체인식 확산 등 기반구축 ▲주민참여 활성화 ▲주민자치 제도개선 등을 추진, 주민 주권의 '충남형 주민자치' 모형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지속 가능한 경제' 육성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남·북부권간 불균형 해소 ▲미래신성장 동력산업 등을 적극 발굴해 나가고,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지역에너지 비전 마련 ▲신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에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맞춤형 복지' 실현은 사회복지, 저출산 고령화, 장애인 복지, 보건행정, 식의약안전 등 5개 분야 복지보전 중장기 계획(2013~2022년)을 수립·추진해 나간다는 계획 아래 ▲오지마을 노인생활지원단 설치 ▲영유아 국가필수 예방접종비 전액 지원 등의 사업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선진 문화관광 구현' 분야에서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새로운 문화가치 창출을 위한 근대 유·무형 유산과 지역축제 연계 사업 ▲충남 출신 유명한 재능 콘서트 ▲역사·문화·인물 콘텐츠 개발사업 확대 ▲관광객 1억명 시대에 대비한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 등을 역점 추진할 계획이다.

## 전국 수출 감소에도 충남 수출은 늘었다

- 7월까지 344억6600만 달러... 지난해 보다 7억 달러 2.1% 증가
- 무역수지 145억 달러 흑자 '3위'... 하반기 해외마케팅 주력키로

유럽 재정위기 등 글로벌 경기침체로 우리나라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선 가운데에도, 충남지역 수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3일 충남도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도내 총 수출액은 344억6,6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37억6,000만 달러에 비해 7억600만 달러(2.1%) 증가한 규모이다.

수입은 지난해 190억5,000만 달러에서 4.7% 증가한 199억3,900만 달러로 분석돼 145억2,7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충남의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경남·북에 이어 전국 3번째이다.

수출 증가율을 품목별로 보면 ▲전자용용기가 지난해 9억3,200만달러에서 올해 25억200만 달러 168.5%로 가장 높았고 ▲자동차 부품은 7억8,900만달러에서 12억7,400만 달러로 61.5% ▲석유제품은 25억4,500만달러에서 32억8,500

만 달러 29% ▲자동차가 9억9,200만 달러에서 11억8,600만 달러 19.5%로 뒤를 이었다.

반면 ▲평판디스플레이는 80억2,200만달러에서 63억1,800만 달러로 21.2% 감소하고 ▲반도체 역시 102억200만달러에서 90억7,600만 달러로 11%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별 수출 증가율은 ▲베트남이 219.6%(8억3,200만달러 12억1,000만달러)로 가장 컸고 ▲중국 8.9%(134억 3,300만 달러 146억2,800만 달러) ▲미국 5.4%(24억200만 달러 25억 3,200만 달러)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홍콩은 51억600만 달러에서 48억 4,000만 달러로 5.2% 감소하고 ▲일본도 24억 7,500만 달러에서 21억800만 달러로 14.9% ▲대만은 22억7,900만 달러에서 17억2,100만 달러로 24.5% 감소했다.

국가별 수출 비중은 중국이 42.4%로 압도적 이었으며, 홍콩과 대만도 수출 감소세를 보이긴 했으나 각각 14%, 5%로 집계돼 중화권에 대한 무역의존도(211억8,900만 달러, 61.4%)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7월 도내 수출액은 51억3,000만 달러로 지난달 50억300만 달러에 비해 2.5% 증가했으나, 지난해 같은 달 50억8,900만 달러에 비해서는 0.8% 증가하는데 그쳤다.

한편 도는 올해 하반기 FTA 체결 국가 및 수혜품목을 중심으로 무역사절단 파견,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등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도는 특히 수출 증가율이 높은 아세안 지역에 대한 집중 공략을 위해 오는 10월 태국 방콕에서 충남우수상품 전시·상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제58회 백제문화제 개최

– 한류원조 미마지와 함께 “제반 준비 차질 없이 진행 중”

제58회 백제문화제는 백제인 미마지(味摩之)의 기악무(伎樂舞) 일본 전파 14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백제의 춤과 음악, 미마지의 부활’을 부제(副題)로 9월 29일부터 10월 7일까지 부여와 공주 일원에서 성대하게 개최된다.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10개, 공주시 38개, 부여군 38개, 논산시 1개 등 총 87개의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이번 축제는 ‘함께 만들어 가는 백제이야기’라는 슬로건으로 주민과 관람객의 참여성 강화를 위한 파격적인 변화를 시도한다.

‘미마지와 통(通)하다’를 주제로 9월 29일 부여 구드래공원에서 열린 개막식과 ‘대백제 천상의 올림!’을 주제로 10월 7일 금강신관공원에서 열리는 폐막식은 ‘게스트’ 중심의 행사로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폐막식 행사는 기존 주제공연 대신 공주시민과 백제권 주민으로 구성된 수백여명의 ‘대백제인합창단’이 ‘백제의 혼’ 등을 열창해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선사한다. 합창은 준비과정 자체가 ‘축제행사의 일부’이며, 수만명의 관람객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이어서 주목된다.

백제문화제의 킬러 콘텐츠인 ‘퍼레이드교류 왕국대백제’는 이번에 부여로 확대돼 총 4회(공주: 10월 2, 3일, 부여: 10월 5, 6일) 시연되며,

기존 다문화가정 등으로 구성된 사신 일행 이외에도 일반인의 ‘행렬단 참여 이벤트’를 진행해 참여성을 크게 강화했다. 행렬단은 전통복 등을 입고 퍼레이드에 참여할 수 있어 색다른 추억거리를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창작무용경연대회, 백제문화상품전국공모전, 전국백일장대회 등 경연(Contest) 프로그램은 올해에도 축제의 참여성 강화와 함께 의연 확대 및 위상 제고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지난해 큰 인기를 모았던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 ‘매사냥’도 4차례(공주: 10월 1, 2일, 부여: 10월 5, 6일) 실시된다.

지난해에 개최하지 못했던 ‘황산벌전투재현’은 10월 6일 논산시 부적면 소재 계백장군유적지에서 스펙터클한 전쟁신으로 관객몰이에 나선다.

부여의 ‘백제사비천도 정도고유제’(9월 30일)와 ‘백제역사문화행렬’(10월 6일), 공주의 ‘웅진성퍼레이드’(10월 1, 3일) 등 각각의 시·군 프로그램도 관람객들의 뜨거운 기대에 화합할 수 있도록 마무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국 4곳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백제문화제 사진전, 충남시외버스에 포스터 부착 등 ‘오프라인 홍보’가 축제를 널리 알리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백제문화제 홈페이지 및 전용 블로그, 서포터즈 카페 등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사전 홍보활동도 네티즌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미마지 재조명에 초점을 둔 개막식의 주제공연(미마지와 통하다), 국제학술회의(고대 삼국의 춤과 음악), 웅진성퍼레이드(미마지의 부활), 백제기악공연-미마지탈춤, 백제탈그리기 등 체험프로그램, KBS역사스페셜(백제기악 미마지탈춤) 등도 절대 놓칠 수 없는 볼거리다.